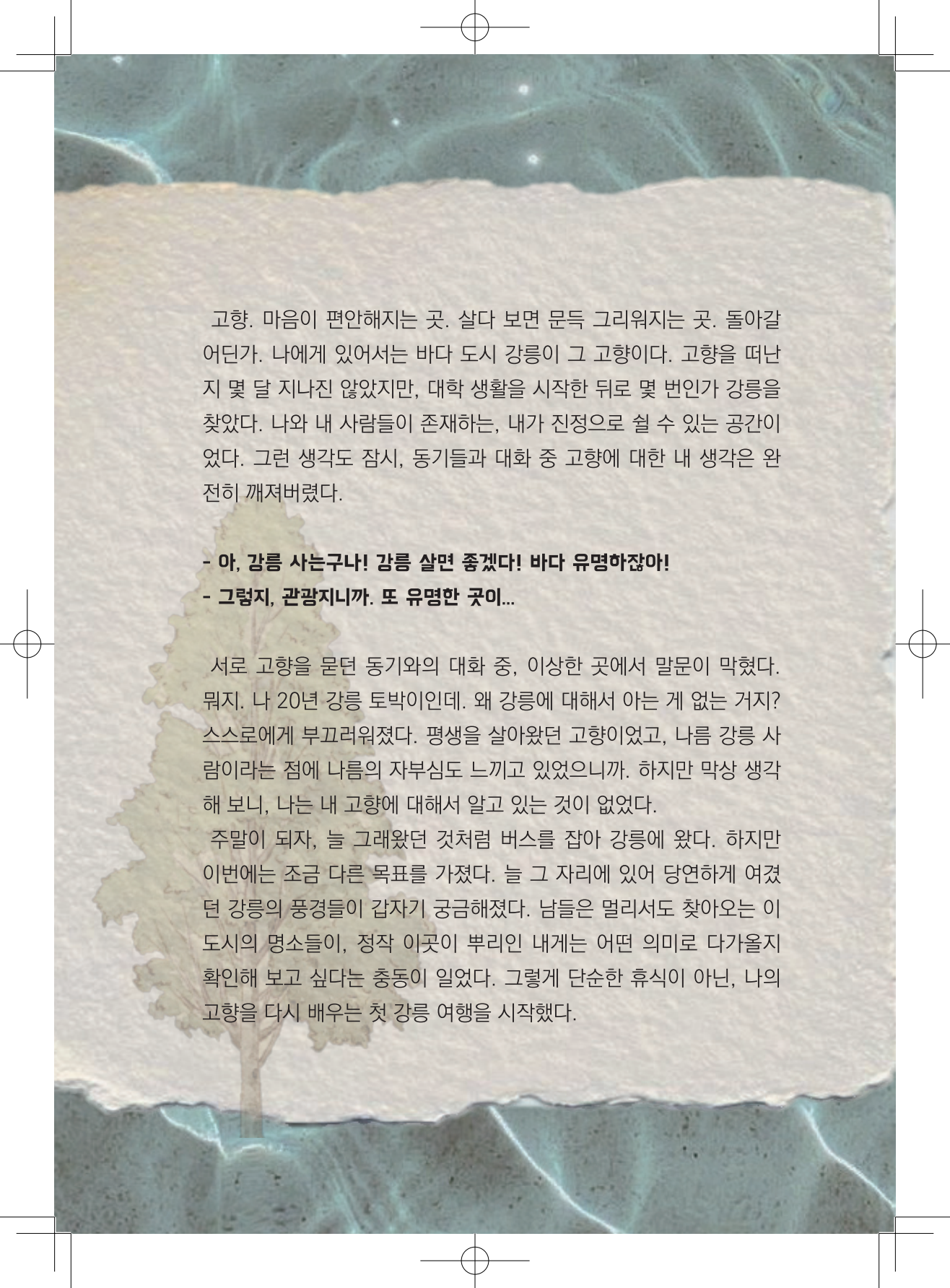


고향으로 떠난  
여행

글 안종혁  
디자인 한려은



고향.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살다 보면 문득 그리워지는 곳. 돌아갈  
어딘가. 나에게 있어서는 바다 도시 강릉이 그 고향이다. 고향을 떠난  
지 몇 달 지나진 않았지만, 대학 생활을 시작한 뒤로 몇 번인가 강릉을  
찾았다. 나와 내 사람들이 존재하는, 내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었다. 그런 생각도 잠시, 동기들과 대화 중 고향에 대한 내 생각은 완  
전히 깨져버렸다.

- 아, 강릉 사는구나! 강릉 살면 좋겠다! 바다 유명하잖아!

- 그렇지, 관광지니까. 또 유명한 곳이...

서로 고향을 묻던 동기와의 대화 중, 이상한 곳에서 말문이 막혔다.  
뭐지. 나 20년 강릉 토박이인데. 왜 강릉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지?  
스스로에게 부끄러워졌다. 평생을 살아왔던 고향이었고, 나름 강릉 사  
람이라는 점에 나름의 자부심도 느끼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막상 생각  
해 보니, 나는 내 고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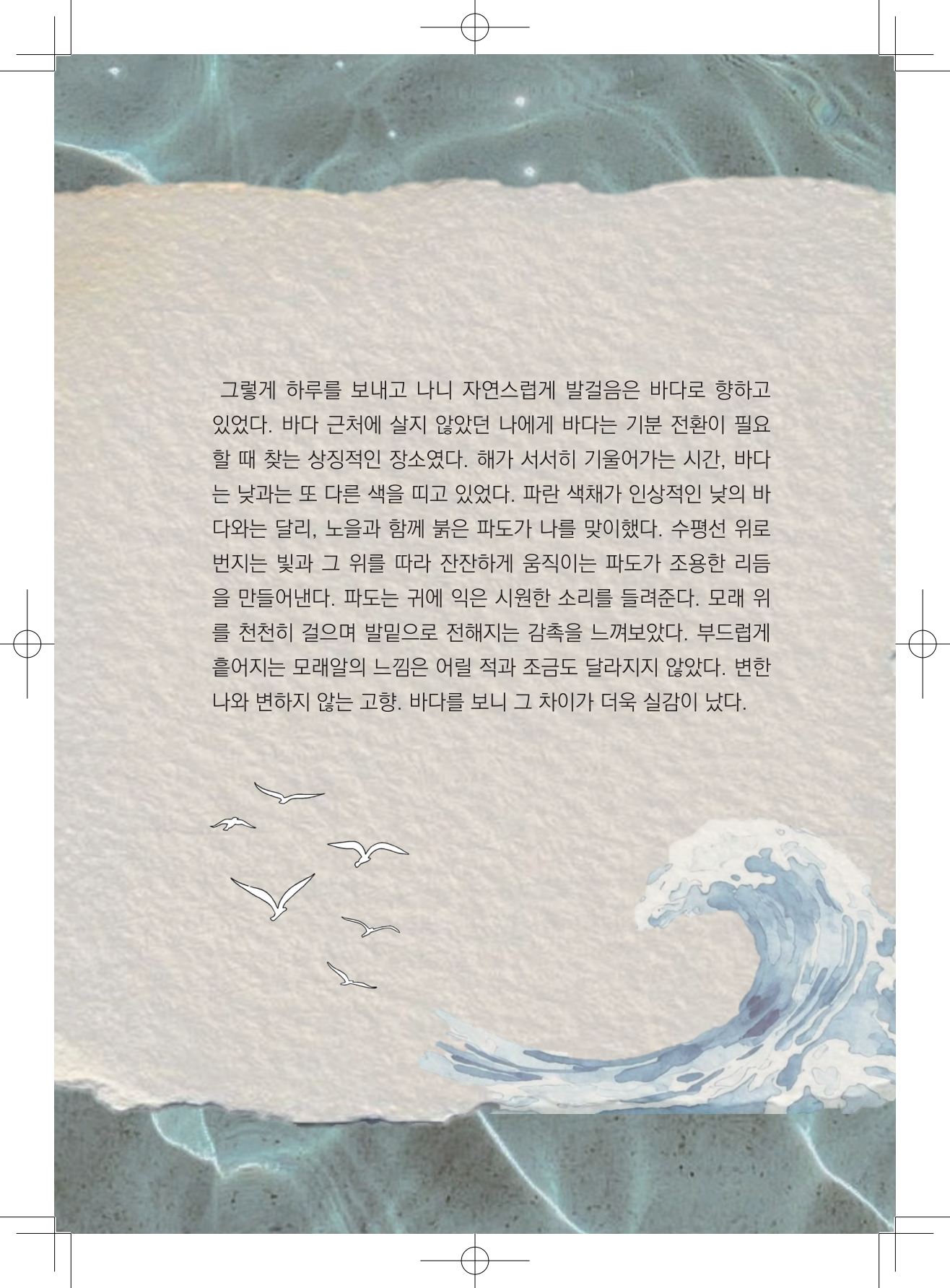
주말이 되자, 늘 그래왔던 것처럼 버스를 잡아 강릉에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목표를 가졌다. 늘 그 자리에 있어 당연하게 여겼  
던 강릉의 풍경들이 갑자기 궁금해졌다. 남들은 멀리서도 찾아오는 이  
도시의 명소들이, 정작 이곳이 뿌리인 내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확인해 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그렇게 단순한 휴식이 아닌, 나의  
고향을 다시 배우는 첫 강릉 여행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오죽헌**이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현장학습이나 소풍으로 직접도록 방문했던 탓에, 그저 따분한 옛 건물이라는 인상 외에는 별다른 기억이 남아 있지 않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다시 마주한 이곳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위인인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를 배출해 낸 역사적 장소라는 상징성 때문이었을까. 오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집 주변을 빼곡히 둘러싼 검은 대나무들의 모습은 묘한 경외심을 자아냈다. 화려한 장식 없이 단정한 기와를 올린 본채는 겉보기에는 소박해 보였으나, 오랜 세월을 견뎌온 나무 기둥과 그 너머로 보이는 고즈넉한 풍경은 웅장한 기품을 자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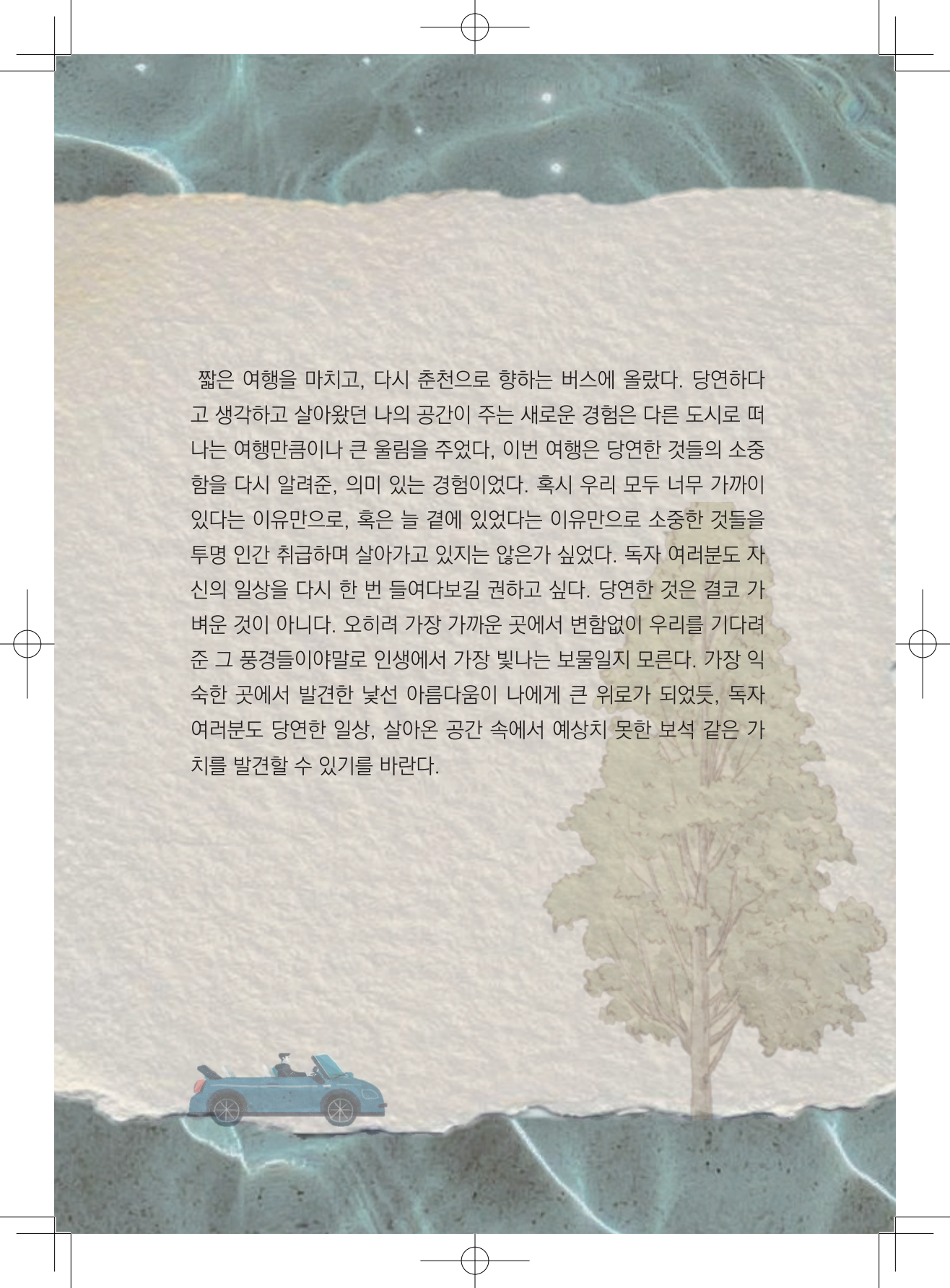


다음으로 찾은 곳은 **선교장**이었다. 강릉에서 나고 자랐으면서 선교장은 이번이 첫 방문이었다.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안일함이 오히려 발걸음을 멀어지게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처음으로 들어선 선교장의 모습은 압도적이었다. 기와가 곧게 뻗은 한옥의 아름다움이 자연과 어우러진 풍경은 한 편의 그림과 같았다.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빛,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고요한 정적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춘천에서의 바쁜 일상에 지쳐있던 나에게 이 여유로움은 무엇보다 큰 위로였다. 그제야 나는 왜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니 자연스럽게 발걸음은 바다로 향하고 있었다. 바다 근처에 살지 않았던 나에게 바다는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찾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시간, 바다는 낮과는 또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파란 색채가 인상적인 낮의 바다와는 달리, 노을과 함께 붉은 파도가 나를 맞이했다. 수평선 위로 번지는 빛과 그 위를 따라 잔잔하게 움직이는 파도가 조용한 리듬을 만들어낸다. 파도는 귀에 익은 시원한 소리를 들려준다. 모래 위를 천천히 걸으며 발밑으로 전해지는 감촉을 느껴보았다. 부드럽게 흘러지는 모래알의 느낌은 어릴 적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변한 나와 변하지 않는 고향. 바다를 보니 그 차이가 더욱 실감이 났다.





짧은 여행을 마치고, 다시 춘천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나의 공간이 주는 새로운 경험은 다른 도시로 떠나는 여행만큼이나 큰 울림을 주었다, 이번 여행은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알려준,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혹시 우리 모두 너무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늘 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것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싶었다. 독자 여러분도 자신의 일상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길 권하고 싶다. 당연한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준 그 풍경들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보물일지 모른다. 가장 익숙한 곳에서 발견한 낯선 아름다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듯, 독자 여러분도 당연한 일상, 살아온 공간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보석 같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